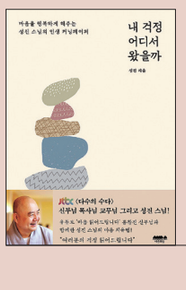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0~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에세이효봉:오늘일을묻는가달이일천강에비치리	이일야/강건기 감수	담앤북스
3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닦는마음밝은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지음	용화
5	본성개념인가실재인가(밝은사람들총서17)	이필원,인경,시정근,신승환,박성현	운주사
6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당신의아름다운세계:바이런케이티금강경을말하다	바이런케이티/이창엽	침묵의향기
9	반야심경정해:반야심경의의미왜곡을드러내고원래뜻을밝힌다	관정	알아차림
10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그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여러분 걱정 읽어요…고민 많은 인생 답 '컨닝'할 수 있다면?"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성진 지음
마음의 숲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생에도 '커닝페이퍼'가 있다면 어떨까. 정답만을 콕 집어줄 수는 없지만, 어깨너머로 힌트를 보고 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 인생에 하나로 정해진 답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모퉁이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답을 원한다. 누군가 답을 알려주길 바라는 막막함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고민 많은 인생에 커닝하라고 기꺼이 모범 답안을 모아 내어주신 성진 스님의 말씀을 엮었다. 인생의 답을 몰라 걱정으로 차오르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나가면 스스로 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일러준다.

"여러분의 걱정 읽어드립니다"

잠들기 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실체 없는 불안은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덩치를 불려 압도하곤 한다. 이를 내려놓는 방법을 저자는 이 책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상상 속에서 거대해진 걱정에 실체를 부여하면 된다.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들고 걱정을 적어보자. 불교에서는 발원문이라고 부처에게 비는 소원을 적는다. 이때 적는 소원이 바로 지금의 걱정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다. 실체를 갖게 된 걱정은 두려워하던 것에 비해 한결 작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지친 내 마음을 돌보는 진료가 된다. 자칫하면 걱정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자체에 잠식되기 쉽다. 이때 한 발짝 떨어져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왜 우울한가? 무엇이 걱정인가? 걱정 일으킨 뿌리를 찾으면 그걸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이 병들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여 치료하는 것과 똑같다. 내 걱정이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던져 찾아간 원인에 힘겨운 감정을 해소하고 벗어날 답이 있다.

4인4색의 종교인 뭉쳐 중창단 결성해
신부님과 함께한 유쾌한 걱정 해소법

"정답지 대신 질문지 펼치는 저자 인생 커닝법"

누군가 정해준 답이 없기에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일삼는다. 이 선택이 옳은지 현시점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의 여로에서 매번 이 길이 맞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답이 맞는지 고민하는 것과 똑 닮았다. 그래도 인생은 시험 시간처럼 고독하게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맞나 틀리나를 두고 머리를 싸맨 채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커닝페이퍼를 들춰보듯,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맬 때 지혜를 나눠줄 동료가 있다. 당신의 곁에 성진 스님의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가 커닝페이퍼처럼 슬쩍 놓인다.

성진 스님은 당신의 고민에 대한 힌트를 직접 던지는 질문 안에서 찾아보라 말한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서 답의 실마리를 좇아가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생을 이룬다. 이 과정을 달리면서 내리 시험 보듯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실은 그 누구도 백 점짜리 인생으로 살 수 없음을 떠올리길 바라본다. 오답인 줄 알고 슬퍼했던 순간도 지나고 돌아보면 옳은 결정, 정답인 행동이었기도 하다. 성진 스님의 일상을 하나씩 짚어주는 명쾌한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당신이 나아갈 길에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

"벽을 넘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주는 막연한 어려움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성진 스님이 떼신 발걸음을 담았다. 2천 년이 넘는 세월 대중의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일이 종교의 본분이었고, 그렇기에 더는 사람들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며 거리로 직접 만나러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에 고립되면서 절, 성당 등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응어리를 털어놓던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체감했다고. 이를 위해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고 책으로도 만나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군대에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법하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장을 펼쳐주고자 한다.

"스승 아닌 존재 없는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인연 없다"



내가있어서 네가즐거우면 나도즐겁다
허공당 혜관 지음
파람북 펴냄/1만5천원

저자는 어린 나이에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지만, "한 나무 아래에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없이 많은 곳들을 떠돌며 수행을 이어온 스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삶이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 감히 저 우주 삼라만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현실과 비현실을 들락거리며 세상을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평생을 '나그네 승'으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설익은 수행자였던 젊은 시절엔 편도 항공권과 200달러의 경비만 들고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쪽 히말라야를 향하기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히말라야산맥 중턱에 뼈를 묻으리라'라는 다짐과 함께.

저자의 수행은 유독 치열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다반사여도, '없음'에서 와서 '없음'을 살고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윤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더구나 부처님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이라면 숱한 고행마저도 다행한 일일 테다. 일정한 거처에 몸과 마음을 의탁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방법은 몸을 법당으로 삼고 마음을 도량으로 삼는 일이다. 저자는 그렇게 자신 안에 법당을 꾸리고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고 그간의 작은 깨달음이라도 법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글을 써오고 있다. 이 책은 그 글들을 책의 형식으로 엮은 것으로 글로 엮은 수행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여느 스님의 책들과는 다르게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아마 저잣거리 또한 훌륭한 수행처로 삼아온 스님의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 가운데 유독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물처럼 투명한 깨달음의 언어로 조명
일상적 소재 가져와 불교 가르침 담아

기약 없는 먼길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일주문을 나서는 스님을 불러세우고 연신 잔기침을 뱉으며 오므린 손에 꼬깃한 지폐 한 장을 밀어 넣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던 할매(할매 부처님). 서로가 불쌍하다며 새벽 공원 산책로에서 부둥켜안은 채 흐느끼던 노부부(사랑이 아니고 동정이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는 끌고 새벽부터 종일 좌판 장사를 하다 밤이면 영감님의 병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할머니(불편하긴요, 영감 곁에 자는데), 시장 한구석에서 천 원짜리 식당을 꾸리다 병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천 원짜리 할머니). 평생 노점을 꾸려 번 돈으로 주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보살피다가 장례까지 치러주던 할머니(깨달은 줄도 모르고). 그 할머니들은 모두 외롭고 가난했지만, 자비심으로 세상의 보이지 않은 등불이 되었던 분들이다. 하리잔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네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던 불가촉천민이다. 거리에서 태어나 구걸로 일생을 살다 거리에서 죽는, 호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리잔 출신으로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회개혁을 이끌었던 암베드카르의 삶을 통해 저자는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되 자신의 삶은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한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사건, 사료 등에서 이야기 소재를 가져와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다. '생활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것이다. 때론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 울컥하게 하기도 하며 정신이 번뜩이게 하게도 한다. 한편 저자의 경전과 경구 풀이는 우화와 여러 에피소드 등을 인용해 설명함으로써 한결 쉽고 간결하다.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의미를 해독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한편 저자인 허공당 혜관 스님은 열한 살 무렵부터 합천 해인사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후 해인사를 떠나 몸을 법당으로 삼고 마음을 도량으로 삼아, 편안하되 편안하지 않고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은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6780-9190	배철완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문화사업단	010-3048-4008	구광국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